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아웃도어 다운재킷은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아삼형 프리미엄 헤비다운 '마크네틱'을 입은 센터폴 전속모델 원빈. 사진제공 | 센터폴

# 크리스마스에 항공점퍼 선물 어때?

## 연인에게 사주고 싶은 아웃도어

복고스타일 재킷·항기나는 커플룩 등 선호 '박신혜 패딩' 등 실속형 다운재킷도 인기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 남자친구에게 혹은 내 여자친구에게 입고 싶은 옷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웃도어 재킷이 어떨까. 보석처럼 아름답지는, 향수처럼 향기롭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연인의 건강을 위해 옷 한 벌 안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무엇보다 '따뜻한 선물'이지 않은가.

### ●항기를 채운 감성재킷·회사에서도 입는 아웃도어

블랙야크는 커플룩이나 패밀리룩으로 제격인 '아이스 엡지(67만원)' 다운재킷을 내놨다. 도시와 자연을 넘나드는 기능과 디자인을 지녔다. 젊은 감성을 담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사파리 콘셉트와 톤다운된 색상이 특징이다.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벌키성(부풀어 오르는 성질)과 보온성을 강화했다. 오버사이즈 스타일이라 여자들도 입기 좋아 커플룩으로 추천한다.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원한다면 항기로 감성을 더한 '메카다운재킷(45만8000원)'이 있다. 블랙야크가 자신하는 감성다운재킷이다. 제주산 온주말감오일 40%, 피톤치드 오일 60%로 구성된 감귤피톤치드 캡슐을 다운재킷

속 공기층에 넣었다. 소취, 항균기능과 함께 재킷에서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래블 비즈니스 라인의 '하운드 슬림 다운재킷'과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를 추천했다. 트래블 비즈니스 라인 다운제품은 직장인 출퇴근은 물론 신축성이 좋아 일을 할 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 '하운드 슬림 다운재킷'은 700필파워의 최고급 항기 구스를 충전재로 사용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다. 톤다운된 솔리드 색상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걸감 손상 시스템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리페어 키트를 제공해 실용적이다. 남성용은 29만원, 여성용은 28만원.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17만원)' 여성용은 지퍼가 사선으로 들어간 라이더 스타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재킷 속에 입으면 더욱 따뜻하다. 단독으로 입어도 멋스럽다.

### ●요즘 대세 항공점퍼·30만원대 실속 패딩도 인기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추천 선물 아이템은 요즘 패셔너의 대세로 등극한 항공점퍼 디자인의 '인트라켓 솜다운(42만원)', 복고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항공점퍼 스타일을 반영했다. 길이감이 짧아 활동적이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낸다. 생활방수, 발수기능을 갖춘 면혼방 소재를 사용했다. 리얼 라운 퍼 트리밍을 적용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남자를 위해서라면 이상형 프리미엄 헤비다운 '마크네틱(79만원)'도 추천 아이템. 다운 애플렛 부분에 자석이 내장된 마그네틱 도트 여밈 방법을 적용해 편리하다. 거주장스러운 장식요소가 없이 심플하고 깔끔한 외관이 특징이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의 '선셋 인카운터스 하프 집(14만8000원)'은 일명 '복유럽 패딩'으로 불리는 노르딕 패턴의 스웨터 질업으로 연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적합한 겨울 아이템이다. 노르딕 패턴 프린트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아웃도어 활동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해 어깨부위에 우븐원단을 덧대 내구성을 높였다. 여자친구의 손과 머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 '파플렛 포인트 캡(4만8000원)'은 유니히트 안감을 사용했다. 모자 옆 부분을 내리면 귀를 덮어 보온 기능이 탁월하다. '로벨 픽 글러브(5만원)'는 착용 상태에서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해 추운 겨울에 장갑을 끼고 벗는 불편함을 없앴다.

밀레의 추천제품은 실속형 패딩 '에글리스 다운(35만9000원)'이다. 일명 '박신혜 다운'으로 불리며 완판을 눈앞에 둔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클래식한 디자인, 털빠짐과 볼륨감 저하를 방지하는 자체 개발 기술력이 적용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밀레 '에글리스 다운'

▶블랙야크 '메카 다운'

▶컬럼비아 '로벨 픽 글러브'와 '파플렛 포인트 캡'

▶아이더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

## 현대차 '움직임의 미학' 무료 전시회

오늘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현대자동차(주)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뜰 2관에서 어울림 광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간에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움직임의 미학(SIM: Sculpture in Motion)' 전시회를 2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협업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드 스크ulpture(Fluidic Sculpture·유려한 역동성)'를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규모 아트 프로젝트로, 현대디자인센터에서 직접 작품을 기획·제작·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첫 선을 보였던 현대자동차 디자인 철학을 담은 '스컬프처 인 모션' 1, 2세대 작품 '플루이드'와 '헬리오 커브' 및 디자인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한 '음악으로서의 움직임' 현대자동차 콘셉트카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로 현대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디자인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움직임의 미학' 전시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현대차 콘셉트카 역사를 볼 수 있는 어울림 광장 모습.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단순히 차량 디자인이 아닌 생활 속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대자동차만의 디자인 DNA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SM3 Z.E.'

2013년 11월 출시 이후 1604대 판매

르노삼성자동차는 21일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SM3 Z.E.라고 밝혔다. 2013년 11월 출시된 SM3 Z.E.는 지난달까지 누적대수 1604대를 기록했다. 또 올해 판매 목표대수 1000대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다양한 전기차 마케팅 전개와 함께 전기차 네트워크 확장, 전기 택시 본격 보급에 앞장서 왔다. 전기차 민간보급을 실시하는 전국 16개 지자체에 전기차 전담 파일럿을 배치하고, 전기차 전문 A/S센터를 226개로 확대 구축하는 한편 배터리 수리 센터를 제주도에 추가 설립하는 등 전기차 A/S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 환경부와 각 지자체 전기차 공모에서 단일 차종으로 부산·포항에서 1위, 제주도 2위 등 괄목할 성적을 보였다.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용 전기차 공급과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 모두 르노삼성차 SM3 Z.E.로 선정됐다. SM3 Z.E.는 국내 유일의 준중형급 100% 순수 전기차로서 주행 안정감과 뒷좌석의 넓은 공간이 큰 강점이다. 한번 충전으로 135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전기택시와 카셰어링, 렌터카에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손꼽힌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벌써 설 선물 대전, 예약판매가 대세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전 예약판매 시작  
예판 기간 앞당겨...매출·비중도 증가세

벌써부터 유통업계의 설 선물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2016년 설 선물 예약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예약판매 기간을 앞당기는 한편 판매 제품 수도 크게 늘렸다. 매년 예약판매를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백화점 일제히 예판 개시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30개 점포에서 내년 1월14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으며, 50여종 늘어난 15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할인율은 한우 10~20%, 굴비 20%, 건과·곶감 20~25%, 와인 30~50%, 건강식품 20~50% 등이다. 현대백화점도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내년 1월 21일까지 예약판매 한다. 천호점, 신촌점 등 13개 점포에선 내년 1월2일부터 진행한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2주 이상 앞당겼으며, 지난해 150여종에서 180여종으로 20% 가량 확대했다. 할인율은 한우 5~10%, 굴비 15~20%, 건과 10~30%, 와인 20~60%, 건강식품 10~50% 등이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엔 내년 1월



국내 유통업계가 2016년 설 선물 예약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14일까지 설 선물세트 15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2일부터 1월21일까지 예약 판매에 나선다. 한우 5~10%, 굴비 20%, 청과 10~20%, 곶감·건과 13~25%, 와인 20~70%, 건강식품은 10~60% 가량 할인된다. AK플라자는 구로본점과 수원점, 분당점, 팽택점 등 4개점에서 내년 1월21일까지 예약판매한다. 실속형 세트인 '예약판매 특가 상품 30선'을 선보이고, 청과와 정육, 선어, 주류 등 품목별로 10~40% 할인한다.

### ●대형마트도 동참

대형마트도 경쟁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내년 1월25일까지 전국 141개 매장서 대표 선물세트 210여종에 대해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

한다. 특히 단품 선물세트 비중을 90%까지 확대해 190개 세트의 경우 1개만 구매해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롯데마트도 23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전국 111개점(빅마켓 5개점 제외)에서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판매 품목은 신선식품 74종과 가공식품 66종, 생활용품 22종, 온라인 단독상품 5종 등 총 167개 품목이다. 선물세트 품목 수는 지난해 설 때보다 80% 이상 확대됐다.

### ●매년 예약판매 비중 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예약판매 기간을 앞당기고 판매 물품을 늘린 이유는 매년 예약판매 매출과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 선물세트 매출은 2013년과 비교해 2014년 설엔 24%, 2014년 추석엔 48%, 2015년 설엔 24%, 2015년 추석엔 98.4% 신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설날 선물세트 전체 판매량에서 예약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9.5%, 2015년에는 9.7%를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전체 선물세트 판매에서 사전 예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설 18.6%, 추석 24%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설에는 28.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G마켓, 루이비통·샤넬 등 최대 69% 할인

27일까지 수입 명품 할인 기획전

G마켓은 27일까지 '수입명품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수입명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럭셔리 수퍼 딜' 코너를 통해 인기 수입명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프라다의 인기 반지

갑을 31만원부터, 코치의 시그니처 위슬렛은 9만9000원부터 판매한다. '발렌시아가 클래식 엔벨롭 크로스백(96만원)', '에트로 여성 가방·지갑(21만8000원부터)' 등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샤넬과 루이비통의 인기제품을 따로 모아 선보이는 코너도 마련했다. '루이비통 알파 B B'를 128만2000원에 판매하고, 루이비통의 페이보릿, 뮌덴, 샤넬의 퀴팅 뉴미들 캐비어 클

러치 등을 포함해 국내 미입고 모델 및 웨이팅 모델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외 프라다, 버버리, 구찌 등 다양한 수입명품 100여종을 한데 모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프라다 선 기간 동안 수입명품 7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을 스마일캐시로 돌려주고,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3만원을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한편 온라인몰에서 수입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G마켓에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명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김명근 기자